

중국의 대 홍콩 경제통합정책

김용민(㈜탐라커피 상무이사)*

김준호(제주한라대학교 교수)**

논문요약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만 30년이 지났다. 홍콩은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매우 긴밀하게 통합되었으나, 홍콩과 중국이, 특히 홍콩인과 중국인이 화학적으로 결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영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구축해놓은 기존 질서를 인정하는 ‘일국양제’는 중국에게 홍콩을 다른 성급 행정구역과는 달리 통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겨주었다.

2003년 이후 중국과 홍콩의 CEPA 체결과 지속적인 보충협정을 통한 경제교류 확대 노력은 실제로 중국과 홍콩 간의 경제 통합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중국 정부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중-홍콩 CEPA는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가장 강력한 경제외교의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홍콩시민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중국인’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현재 홍콩과 중국 간의 경제교류에서 많은 부분에서 경제협력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홍콩이 중국 대륙으로 반환되어 30년이 지난 지금 ‘우산 혁명’과 같은 반중국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단지 이 혁명은 민주화의 요구만이 아닌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불평등과 기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에 대한 갈증만을 내포한다고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홍콩은 중국과 어떠한 결합을 통해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내야 할 시기이다. 이에 끊임없는 외부 세력과의 결합으로 인해 무더질 수밖에 없는 홍콩만의 새로운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홍콩의 철학적 고찰이 대두되는 시대이고 토착적 사고방식을 넘어선 정체성의 변화를 모색해야할 시기이다.

주제어 : 중국, 홍콩, 홍콩반환, 통합, 일국양제, 경제외교, 경제교류, 우산혁명

* 제1저자

** 교신저자

I. 서론

홍콩과 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하나의 나라(One Country)지만, 서로 다른 시스템(Two System)으로 움직이고 있다. 원칙적으로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홍콩의 자율성이 인정되고 실행된다. 일국양제는 1980년대 초반 영국과 중국의 홍콩반환협상 과정에서, 홍콩에 대한 주권 확보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중국과 홍콩반환 이후에도 영국과 서구자본이 갖춰놓은 홍콩의 기본질서를 최대한 유지하고자 했던 영국의 이해가 만난 접점이었다.¹⁾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만 30년이 지났다. 홍콩은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매우 긴밀하게 통합되었으나, 홍콩과 중국이, 특히 홍콩인과 중국인이 화학적으로 결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홍콩대학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홍콩시민들이 스스로의 정체성(identity)을 ‘중국인’이라 생각하는 비율은 1997년의 18.6%에서 2017년에는 오히려 14.5%로 낮아졌다.²⁾ 그 이유는 무엇인가? 홍콩의 경제인들은 종종 지난 30년간의 중국과 홍콩의 경제통합으로 홍콩이 큰 경제적 혜택을 보았다고 주장하는데도 말이다.

본 논문은 중국이 홍콩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으로의 동화(同化)³⁾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 수단을 살펴보고, 그 수단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작동하였나를 검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중국이 그 과정에서 동원한 수단을 경제외교(economic statecraft, economic diplomacy)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려 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따른다.

첫째, 전통적인 의미에서 홍콩은 중국의 외교대상이 아니다. 중국정부는 1997년 이후 홍콩에 외교관을 파견하고 있지만⁴⁾, 외교(diplomacy)란 본질적으

1) 김옥준, “홍콩반환협상에서의 쟁점과 중국의 협상전략.”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2집 1호, 2013, pp. 413~435.

2) 홍콩대학민의 홈페이지(HKU POP SITE), <https://www.hkupop.hku.hk>(검색일:2017.12.28.).

3) 가리타니 고진의 이론을 이용, ‘자본=네이션=스테이트’가 정확하게 구현되고 있는 공간이 중국이고, 그것을 똑같이 요구하는 대상이 홍콩이라고 본다. 류영하, “방법으로서 ‘중국-홍콩체제’.” 『중국현대문학』 제 83호, 2017, pp. 253~282.

4) 홍콩에는 중국의 ‘주홍콩특별행정구특파원공서(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the Ministry of Foreign

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정책, 협상, 과정 등을 다루기 때문에⁵⁾, 중국의 입장에서 자국의 일부인 홍콩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다. 홍콩은 외교권이 없다.

둘째, 국내에서는 ‘경제외교’라는 단어가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⁶⁾, 학술적으로 그 개념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경제외교에 관한 학술논문이나 전문서적도 많지 않은데다가, 경제외교를 주제로 한 논문도 경제외교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지는 않다. 중국학자들이 경제외교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중국에서 2000년대 초반 이후 경제외교가 중국 외교의 새로운 초점이 되고 있음을 주장한다.⁷⁾ 하지만 무엇이 경제외교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또한 경제외교를 경제적 이익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외교적 행위와 경제적 수단을 통해 국가이익과 같은 포괄적 목적을 추구하는 대외적 행위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으나, 실제 분석에서는 중국의 대외무역과 금융거래 관련 행위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⁸⁾ 반면, ‘economic statecraft’를 경제외교라 번역하며, 경제원조(positive economic sanctions)와 경제제재(negative economic sanctions)를 모두 자신의 경제외교 논의에 포함시켰다.⁹⁾ 반면, 어떠한 경우에는 ‘economic statecraft’를 ‘경제통치술’이라 번역하였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¹⁰⁾

홍콩과 중국의 관계를 경제외교라는 틀로 바라볼 경우 예상되는 위의 문

Affairs of the PRC in the Hongkong S.A.R.’에 중국의 전문 외교관이 파견 나와 있다. 영사 업무를 비롯해 일반적으로 총영사관이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5) 해롤드 니콜슨 지음, 신복룡 옮김, 『외교론』, 서울: 평민사, 2016, p. 23.
- 6) 대한민국 외교부에는 실장급의 경제외교조정관이 있고, 양자경제외교국이 있으며 그 아래에 양자경제외교 총괄과, 동아시아경제외교과, 북미유럽경제외교과 등 세 개의 과가 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경제외교를 담당하는 부서는 따로 없으나, 학계에서는 우리보다 활발히 경제외교를 연구하고 있다. 칭화대학교와 외교학원이 각각 2006년과 2007년에 경제외교연구센터를 설립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칭화대에서 백서형태의 『中國經濟外交研究』를 발간하였다.
- 7) 김재철, “중국의 경제외교: 경제적 고려를 넘어서.” 『국가전략』 제13권 4호, 2007, pp. 41~67.
- 8) 권혁재·최지영, “시진핑 체제 중국 경제외교의 발전과 특징: ‘중국의 꿈(中國夢)’을 위한 교두보 실현.” 『현대중국연구』 제16집 2호, 2015, pp. 81~124.
- 9) 서승원, 『북풍과 태양: 일본의 경제외교와 중국, 1945-2005』,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pp. 211~212.
- 10) 김석준, 『국가 능력과 경제통치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pp. 56~59.

제들에 대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홍콩은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외교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홍콩과 중국이 서로 다른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한, 홍콩은 이른바 중국의 ‘경제통치술(economic statecraft)’의 대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홍콩은 중국에 있어서 ‘다스림’, 즉 통치의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이 ‘economic statecraft’ 까지를 경제외교에 포함시킨다면, 중국과 홍콩의 관계를 넓은 의미의 외교라고 표현해도 될 것이다.

둘째, 본 논문은 경제외교라는 단어를 폭넓게 사용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 수단을 기조로 하는 대외정책’ 즉 경제적 수단을 이용하여 상대국에 긍정적(positive)으로 또는 부정적인(negative)인 영향을 끼치는 모든 행위를 경제외교라 본다.¹¹⁾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제외교의 형태를 경제원조라 칭한다. 여기서 경제원조라 함은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후진국에게 제공하는 직·간접적인 경제적 지원만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협정, 최혜국대우, 수출입보조, 자원공동개발, 차관제공, 투자기업 우대 등 상대국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주거나 그런 환경을 제공하려는 행동 또는 그 약속 모두를 말한다. 반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제외교의 형태를 경제제재라 칭한다. 여기서 경제제재라 함은 일반적으로 제재대상국의 불법적 행위 또는 폭력적 행위에 대해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조직의 결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제법상의 제재(sanctions)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제한, 수출입규제, 자산동결, 원조삭감 등 상대국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가져다주거나 그런 환경을 제공하려는 행동 또는 그 위협 모두를 말한다.¹²⁾

본 논문이 검토하는 홍콩에 대한 중국의 경제외교는 시기적으로 1997년 홍콩의 주권반환 이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권반환 이전에도 중국과 식민지

11) 서승원, 『북풍과 태양: 일본의 경제외교와 중국, 1945- 2005』, pp. 211~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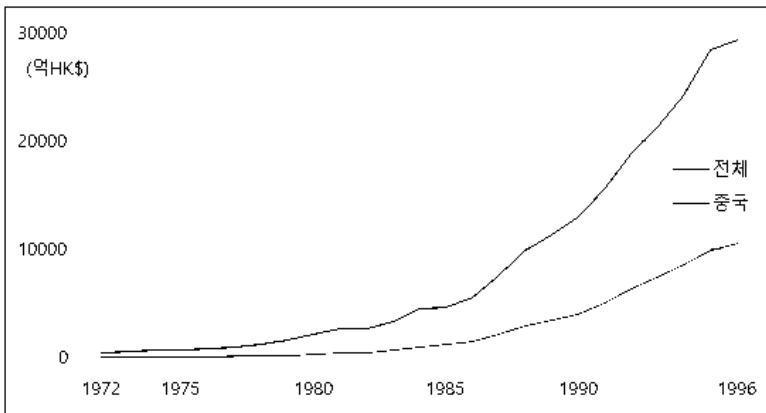
12) 한편, 중국 학자 장샤오통(張曉通)은 경제외교를 ‘일국 정부가 자국의 대외교류에서, 전략, 책략, 제도 운용 등의 방식을 통해 능동적으로 ‘경제적인 자원 ‘힘’을 상호 전환시키는 행위, 기술 또는 그 과정’이라 정의하며, 경제외교를 경제적 인센티브를 사용한 힘의 추구, 힘을 이용한 경제적 이익 추구 모두를 지칭하고 있다. 張曉通, “中國經濟外交理論構建.” 『外交評論: 一項初步的嘗試』 第6期, 2013, p. 53.

홍콩은 최소한 경제적으로 다양한 관계를 맺어왔다. 따라서 주권반환 이전의 양 지역 간 경제교류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본다. 그리고 논문의 중심에 해당하는 주권반환 이후 약 20년간의 중국의 대홍콩 경제외교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2014년 홍콩 ‘우산 혁명’ 이후 홍콩과 중국의 경제교류 변화와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반환’ 이전 중국과 홍콩의 경제교류

19세기 중엽 아편전쟁으로 영국에 할양된 홍콩은 1940년대까지 중국과 서방을 연결하는 중개무역(entrepot trade) 도시로 발전하였다. 홍콩의 지리적 위치, 정치적 안정, 상대적으로 발전된 항만시설 등은 홍콩이 중국 대륙과 서방 세계를 잇는 중개무역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중국으로 통하는 남중국의 관문 역할은 중국 외부의 세력, 특히 홍콩을 통치하였던 영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에 의해 부여되었다.¹³⁾

<그림 1> 반환 전 홍콩의 대 중국 무역액 추이(1972~1996)



출처: <https://www.censtatd.gov.hk>

13) 임계순, 『중국의 여의주 홍콩: 홍콩의 역사와 미래』,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7, pp. 78~82.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중국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장악하면서 중국본토와 홍콩의 연계는 약화되었다. 특히 한국전쟁에 영국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유엔의 대중국 전략상품 교역금지로 인해 홍콩과 중국의 무역거래는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

1950년대 이후 홍콩은 산업화의 길을 걸었다. 중국대륙에서 건너온 풍부한 노동력과 일정한 기술력을 이용해 섬유, 화학, 전자공업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발전시켜나갔다. 19세기부터 발전되어온 금융과 물류서비스는 홍콩이 세계 시장에 자신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¹⁴⁾ 그러나 1972년부터 개혁개방 원년인 1978년까지 홍콩의 전체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9%~11.0%에 불과했다.

1950년을 전후해 약 10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중국의 공산화를 피해 홍콩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⁵⁾ 그러나 곧이어 홍콩과 중국 본토간의 경계가 다시 봉쇄된 이후, 중국 본토인과 홍콩인의 왕래는 크게 줄어들었다. 개혁개방 이전인 1976년~1977년에는 연간 약 4,000여 명이 홍콩을 방문했을 뿐이며, 매년 270만 명이 홍콩을 방문하던 1983년에도 홍콩 방문 중국인은 1% 남짓한 3만 여명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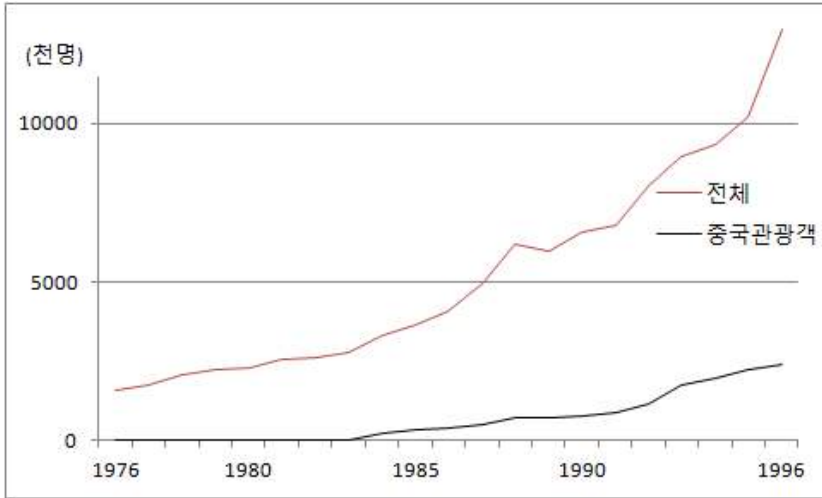
홍콩은 19세기 중엽 이후 오랜 기간 아시아의 금융센터 역할을 수행해 왔고, 20세기 초 공산당과 국민당의 내전으로 상하이에 있던 금융기관의 물적·인적 자원이 홍콩으로 내려왔지만, 무역거래와 마찬가지로 중국 본토에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홍콩과 중국 본토의 금융거래는 명맥이 끊기다시피 했다. 동남아시아 화교들이 사회주의로 변모한 중국의 친척들에게 송금할 때 홍콩의 금융시장을 이용할 뿐이었다.¹⁶⁾

14) G. B. 엔더콧 지음, 은은기 옮김, 『홍콩의 역사』, 경기: 한국학술정보, 2006, pp. 23~27.

15) 임계순, 『중국의 여의주 홍콩: 홍콩의 역사와 미래』, pp. 98~102.

16) 임계순, 위의 책, pp. 88~89; 김용민, “홍콩의 위안화 역외센터 발전 가능성 연구 - 런던, 싱가포르, 홍콩 역외금융센터 발전과정의 비교역사적 접근.” 『국제자유도시연구』 제6권 제2호, 2016, pp. 12~14.

<그림 2> 반환 전 홍콩방문 중국 방문객 추이(1976~1996)



출처: <https://www.censtatd.gov.hk>

중국이 다시 홍콩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덩샤오핑 집권 직후 대외개방을 추진하면서부터다. 낙후한 중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선진 기술 이전, 외화 획득, 고용 창출이 필요했고, 홍콩에 인접한 선전을 비롯해 주하이, 산터우, 샤먼 그리고 하이난이 경제특구로 지정되었다.¹⁷⁾ 특히 홍콩은 내륙의 공산정권 수립으로 100년 가까이 담당해오던 중계무역, 금융중심의 역할이 약화되자 가공무역 중심의 공업화를 활발히 전개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며 홍콩경제의 성장과 함께 지가상승, 물가상승, 임금상승이 이어지며, 홍콩에서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었다. 이 때 홍콩과 육로로 연결된 선전을 비롯한 경제특구의 건설은 새로운 활로를 찾던 홍콩의 기업가들의 이해와도 일치하였다. 홍콩의 자본이 선전을 비롯한 경제특구 그리고

17) 1980년 8월 제5기 중국전인대 당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선전과 주하이, 산터우의 경제특구 설치가 가장 먼저 결정되었고, 샤먼은 같은 해 10월 국무원 회의에서 승인되었다. 하이난은 1988년에 성(省)으로의 승격과 동시에 경제특구로 지정되었다. 박정동, 『현대중국경제론: 경제특구의 경제적 효과』, 서울: 법문사, 1993, p. 18; 광복선 외, 『중국경제론』, 서울: 박영사, 2015, p. 112.

이후에는 인근 광둥지역에 제조업 기지를 이전하면서, 홍콩은 설계, 디자인, 유통, 판매를, 중국은 제조를 맡는 ‘전점후창(前店後廠)’의 분업이 이루어졌다.

1982년 영국의 대처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면서 영국과 중국은 공식적으로 홍콩반환 협상을 개시한다. 협상 중 중국은 주권의 이양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홍콩의 기존 경제제도와 생활양식, 재산권, 독립적인 관세권, 외국과의 경제교류 등 홍콩의 경제 시스템을 최소 50년간 인정하는데 합의한다. 중국으로서는 홍콩의 경제 질서를 흔들어 홍콩내의 자본과 인재의 유출을 막고 홍콩사회를 안정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¹⁸⁾

1984년 9월 ‘중·영 공동선언’으로 홍콩 주권반환 협상이 일단락되었다. 1997년까지 과도기 13년간 개혁개방을 추진하던 중국과 홍콩의 경제적 관계는 더욱 긴밀해진다. 1996년 홍콩과 중국의 무역액은 1984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홍콩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5 수준에서 1/3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비즈니스가 늘어나며 상호간의 왕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93년 홍콩방문 중국인은 3.2만 명에 불과했으나, 1996년에는 239만 명으로 늘어났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금융에서도 중국과 홍콩의 협력이 시작되었다. 1993년에 칭다오맥주가 중국기업 최초로 홍콩 주식시장(H주)에 상장된 후로, 상하이A주 중심의 우량 국유기업들이 홍콩에서 기업공개로 이어나갔다.¹⁹⁾ 자금이 풍부한 홍콩의 자본시장이 중국기업 경쟁력을 강화의 기회가 되었다.

신중국 수립이후 약 50년간 중국과 홍콩의 관계는 경제외교의 관점에서 설명하기는 어렵다. 두 지역의 단절은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결과였고, 1970년대 후반 이후의 재결합은 상호 경제적인 이해가 추동한 것이었다. 그 과정과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 실제 미달러 대비 홍콩달러의 환율은 1973년부터 1980년까지 1:4.6~1:5.1에서 소폭 등락하였으나, 1981년과 1982년에는 1:5~1:6까지 오르기 시작하였으며, 쌍방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던 1983년 5월에는 1:7로, 9월 24일에는 1:9.5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홍콩정부는 긴급조치를 통해 같은 해 10월 17일에 1US\$=7.8HK\$로 하는 연계환율제를 재시행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옥준, “홍콩반환협상에서의 쟁점과 중국의 협상전략,” pp. 419~420; 홍콩금융관리국 홈페이지, <http://www.hkma.gov.hk/eng/market-data-and-statistics/economic-and-financial-data-for-hong-kong.shtml>(검색일:2018.6.13.).

19) 박용석, 『최고의 홍콩 주식 110』, 경기: 위즈덤하우스, 2008, p. 57.

첫째, 1949년 이후 중국과 홍콩의 경제는 단절 → 재결합의 단계로 발전하였다. 홍콩은 아편전쟁 이후 영국 및 서방세계와 중국을 연결하는 창구의 기능을 담당하여 왔으나,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장악하자 두 지역 간의 경제적 교류조차 크게 위축되었다. 마오쩌둥 시기 대외문제에서 중국의 관심사는 미국·소련과의 관계 설정,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였다. 1970년대 후반 등소평의 등장과 중국의 대외 개방으로 중국과 홍콩은 다시 만나게 되었다. 과거의 긴밀했던 관계가 회복된다는 점에서 재결합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선전을 비롯한 경제특구의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그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홍콩의 기업들이었다. 경제특구의 설립과 운영을 ‘일국양제’의 표본으로 삼고, 구체적인 정책변화를 통해서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 주민들에게 중국의 정책변화를 보여주고자 하였다.²⁰⁾ 그러나 중국이 홍콩 등 4개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한 것은 개혁개방 직후인 1980년이었고, 중국의 ‘일국양제’ 구상은 1981년 9월 대만을 대상으로 발표되었다. 1980년 이전부터 덩샤오핑을 비롯한 당시 지도자들의 머릿속에 홍콩과 대륙을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하려는 구상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겉으로 드러난 시기를 보면 경제특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국양제’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제특구의 설치와 홍콩과의 협력은 외자도입·기술도입을 통해 중국경제를 발전시키려던 중국의 목적과 제조업의 중국 본토 이전을 통한 원가 절감과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홍콩의 이해가 결합된 결과였다.²¹⁾

셋째, 개혁개방 이후 홍콩의 중국 반환 전까지 중국과 홍콩 간의 관계 회복을 중국의 대홍콩 ‘경제외교’라는 관점에서 보기는 어렵다. 영국과의 반환협상을 통한 홍콩 반환과정은 주권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협상 과정에서 주권 회수가 분명해진 이후에는, 반환이후 홍콩경제 운용에 관해서 중국의 입장을 관철시키기보다는 영국과 홍콩기업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한 점에서

20) 박정동, 『현대중국경제론: 경제특구의 경제적 효과』, pp. 42~45.

21) 위엔이밍(袁易明)은 중국과 홍콩의 경제협력의 특징을 수직적 분업, 자발성, 효율성이라고 평가하였다. 袁易明, “制度性整合: 香港與內地經濟關係的未來形態,” 『深圳大學學報』第24卷 第3期, 2007, p. 25.

보아도 그렇다. 개혁개방 이후 홍콩기업의 대규모 중국투자도 변화된 환경을 홍콩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했을 뿐, 중국이 정치적 힘을 이용해 홍콩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를 얻어내려 했다거나, 홍콩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는 관점으로 볼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을 지라도 말이다.

Ⅲ. ‘홍콩 반환’ 이후 중국의 대홍콩 경제외교

1. 홍콩 향한 중국 경제외교의 첫걸음 : 중·홍콩 CEPA

1997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홍콩의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되었다. 홍콩은 다시 중국의 일부가 되었고 중국은 간접적으로나마 홍콩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홍콩의 주권반환 당시 홍콩과 중국의 경제력 격차는 크지 않았다. 1997년 시점에서 12.4억 명의 중국 GDP가 총액기준으로 650만명 인구 홍콩의 5.4배에 불과했다. 1970년대 중반이후 홍콩은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업을 광둥성의 주강삼각지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금융, 무역, 물류, 비즈니스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성공적으로 진행시켜왔기 때문이다.

홍콩은 중국 반환 직후인 1998년과 1999년, 2002년과 2003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다. 1997년 말 폭발한 아시아 금융위기와 미국의 ‘9·11사건’, ‘사스(SARS)’²²⁾가 연달아 홍콩 경제를 강타했다.²³⁾ 2003년 중반에는 역대 최고의 실업률(8.7%)을 기록했다. 사회적으로는 중국정부의 압력에 의해 통과된 ‘반국가전복법’ 등에 대한 반발로, 2003년 7월 1일 홍콩반환 6주년 기념일에 약 50만 명의 홍콩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개최되었다. 1997년부터 2003년

22)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급성호흡증후군)는 2003년 중국에서 발발해 600여 명이 사망한 전염병으로, 홍콩에서만 299명이 목숨을 잃었다.

23) 홍콩의 고임금, 고물가, 과도한 서비스업 의존과 중국 경제와의 협력부족 등도 홍콩 경제 침체의 내적인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莫世祥, “香港回歸10年的經濟軌跡透析.” 『深圳大學學報』 第24卷 第3期, 2007, pp. 21~22.

까지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사이 홍콩경제는 뒷걸음질 치며 2003년에는 불과 6년 만에 중국의 GDP가 홍콩의 10배가 되었다.

〈표 1〉 중국과 홍콩의 GDP 비교

(단위 : 억US\$, 배)

	1978	1997	2003	2014
홍콩GDP(A)	183	1,774	1,614	2,915
중국GDP(B)	2,185	9,616	16,602	104,834
홍콩의 크기(B/A)	11.9	5.4	10.3	36.0

출처: 홍콩정부 통계처의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홍콩 경제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최저점을 찍던 2003년 6월 중국과 홍콩은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를 체결하였다. 2004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중-홍콩CEPA는 홍콩 경제 회복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발효 즉시 273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의 관세가 철폐되었고, 금융·법률·의료·경영 컨설팅 등 17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이 WTO 가입 시 합의한 일정보다 앞당겨 홍콩기업에 대해서는 폭넓게 개방할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통관, 검역 등 홍콩과 중국 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²⁴⁾ 중-홍콩CEPA는 2004년 1월 1일 발효 이후, 매년 보충협상을 체결해 중국과 홍콩 간 상품·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상호 투자확대의 범위를 넓혀나갔다. 특히 상품무역은 2006년 1월 1일부터 모든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었고, 서비스 무역의 경우 중국은 홍콩의 기업에게 WTO의 160개 분야 중 153개 분야를 개방하였다.

24)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中HK 경제협력 강화 협정(CEPA)의 주요 내용』, 한국무역협회, 2003.

〈표 2〉 중국-홍콩 CEPA 체결 경과

연 도	내 용
2003.6	중-홍콩 CEPA 체결
2005~2013	중-홍콩 CEPA 보충협정1~10 체결
2014.12	〈광둥-홍콩간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기본적 실현에 관한 협정〉
2015.11	〈서비스무역협정〉
2017.6	〈투자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

주: 2014년 이후 4개의 협정은 CEPA 보충협정이라 이름 붙이지는 않았지만, CEPA라는 제도적 틀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협정으로 평가된다. HKTDC, “CEPA 2017: New Measures and New Opportunities for Hong Kong.” *HKTDC RESEARCH*, 13 July 2017, pp. 3~6; 應堅, “CEPA新協議支持香港金融業發展.” 『中銀財經速評』 第85號, 2017, pp. 1~2.

중-홍콩CEPA 실시 이후, 홍콩과 중국과의 무역액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는 홍콩의 무역총액에서 중국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50%를 넘어섰다.

〈표 3〉 홍콩의 대 중국 무역액 추이(1997~2016)

(단위: 조 HK\$)

	1997	2003	2010	2013	2014	2015	2016
대중무역	1.12	1.53	3.13	3.89	3.97	3.92	3.86
무역총액	3.07	3.55	6.40	7.62	7.89	7.65	7.60
비중(%)	36.3	43.1	48.9	51.1	50.3	51.2	50.8

출처: www.censtatd.gov.hk

상품 수출의 경우 전체 수출의 98% 이상은 재수출이기 때문에, 중-홍콩 CEPA의 경제적 효과가 보다 분명한 것은 홍콩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이다. 중-홍콩CEPA가 체결된 2003년 홍콩의 대중 서비스 수출은 692억 HK\$였으나, 10년 뒤인 2013년에는 3,172억 HK\$를 기록해 약 4.6배로 증가했다. 무역경쟁지수(TC)와 발라사모형을 이용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중-홍콩CEPA 체결을 전후한 10년간의 서비스무역 개방효과를 분석한 결

과, 중-홍콩CEPA 체결로 인한 무역장벽의 감소로 홍콩기업의 중국투자가 증가했으며, 두지역간 서비스무역의 상호보완성과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특히 홍콩은 관광,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등에서 중국은 운수, 통신, 컴퓨터 관련 서비스에서 경쟁력 우위를 드러냈다.²⁵⁾

〈표 4〉 홍콩의 대 중국 서비스 수출액 추이(1997~2016)

(단위: 억 HK\$)

	1997	2003	2010	2013	2014	2015
대중수출	404	692	1,856	3,172	3,217	3,108
수출총액	2,266	2,564	6,156	7,821	8,001	7,808
비중(%)	17.8	27.0	30.1	40.6	40.2	39.8

출처: www.censtatd.gov.hk

홍콩의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회복에 큰 역할을 한 또 하나의 계기는 중국인의 홍콩 개별여행 허용 정책이었다. 중국은 2003년 7월 28일 광둥성의 둥관, 포산, 중관, 장먼 등 4개 도시 주민을 필두로 홍콩 개별여행을 허용해,²⁶⁾ 2015년 현재 광둥성 전역을 포함해 중국의 주요 49개 도시 주민들은 자유롭게 홍콩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 주요 도시 주민들의 홍콩 개별여행이 가능해지자, 홍콩방문 중국 관광객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사스가 홍콩을 강타했던 2003년 외국 관광객은 전년 대비 267만 명 감소했지만, 중국 관광객은 개별여행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164만 명이 증가해 홍콩의 내수 촉진과 경제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매년 중국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14년에는 연간 4,700만 명의 중국인이 홍콩을 방문했다.

25) 毛艷華肖延兵, “CEPA 十年來內地與香港服務貿易開放效應透評析.” 『中山大學學報』 第53卷 第6期, 2013, pp. 13~15.

26) 개별 방문제도 시행 전에는 단체관광이나 출장 목적으로만 중국인의 홍콩방문이 허용되었다.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홍콩의 서비스산업 추진전략 및 시사점』, 서울: 외교부, 2014, p. 164.

〈표 5〉 홍콩방문 중국 관광객 추이(1997~2016)

(단위: 만 명)

	1997	2002	2003	2010	2014	2015	2016
중국인	236	683	847	2,268	4,725	4,584	4,278
총방문객	1,127	1,657	1,554	3,603	6,084	5,931	5,665
비중(%)	20.9	41.2	54.5	62.9	77.7	77.3	75.5

출처: http://partnernet.hktb.com/en/research_statistics/index.html

중-홍콩CEPA 체결과 대륙관광객의 급증으로 홍콩의 취업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²⁷⁾ 개별여행과 관계된 요식업, 호텔, 오락, 소매, 사치품, 택시 등 서비스업의 노동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다. 홍콩의 실업율은 2002년과 2003년 역대 최고인 7.3%~7.9%까지 올라갔다가,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 이후는 매년 3.3%~3.4% 수준으로 떨어져 실질적으로는 완전고용에 근접했다.

주목할 것은 중-홍콩CEPA 체결에서 중국 대륙과 홍콩의 교류 역사에서 최초로 중국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발휘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²⁸⁾ 홍콩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은 중-홍콩CEPA 체결행사에 참석한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중앙정부와 홍콩의 CEPA 체결은 ‘일국양제’ 원칙과 WTO의 틀 안에서 만들어진 특수한 제도입니다. 주권국가인 중국과 독립관세구역인 홍콩 간의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관계를 반영하였으며, 홍콩에 대한 중앙정부와 중국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중-홍콩 CEPA가 홍콩의 공상계에 더욱 큰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오고, 홍콩 경제의 회복과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²⁹⁾

27) 齊明, “CEPA 籤署以來對內地和香港的經濟影響研究.” 『外交學院 碩士研究生學位論文』 2013, pp. 58~61.

28) 莫世祥, “香港回歸10年的經濟軌跡透析,” p. 24; 毛艷華 肖延兵, “CEPA 十年來內地與香港服務貿易開放效應透評析,” p. 7.

29) 2003년 중-홍콩 CEPA 체결의식에 참여한 원자바오 전 총리의 연설 내용 중 일부이다.

2. 두 번째 단계 : 중국과 홍콩의 금융통합

홍콩은 아시아 금융센터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세기 중반부터 주식시장이 형성되었고, 세계적인 규모의 은행인 HSBC가 1865년에 홍콩에서 설립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도 중국 본토의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홍콩은 중국과 서양을 잇는 금융센터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중국 대륙의 공산정권 수립으로 홍콩과 중국의 금융 교류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³⁰⁾

1949년 이후 중국이 다시 금융센터로서 홍콩의 기능을 인정한 것은 영국과의 홍콩반환 협상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1984년 중국과 영국간의 반환협상을 거쳐 양국이 서명한 ‘중영연합성명’³¹⁾에서 양국은 홍콩의 ‘국제금융센터’의 역할을 유지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고, 1990년 4월에 제정된 〈홍콩기본법〉³²⁾ 제109조~제112조에서 기존 홍콩의 금융시스템과 금융시장 개방 등 홍콩의 국제금융센터 지위 유지를 위한 경제적·법적 환경 제공을 규정하였다.

중국에 비해 홍콩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월등한 만큼, 중-홍콩CEPA에서도 양 지역 간의 금융시장 개방을 통한 금융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중-홍콩CEPA 체결로 홍콩 은행들의 중국 시장 진출 문턱을 낮추고, 이어진 보충협정을 통해 보험업무, 위안화 업무, 펀드업무, 증권업무, 소비자금융업무 등으로 금융시장 개방 범위를 넓혔다.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은 금융의 측면에서 홍콩의 기능을 살리는 동시에 홍콩과 중국을 묶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03년 홍콩에서 가장 먼저 개인의 위안화 계좌 개설에 필요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2004년부터는 개인의 위안화 예금·송금·환전이 가능해졌고, 중국 본토 이외의 지역에서

30) 김용민, “홍콩의 위안화 역외센터 발전 가능성 연구 - 런던, 싱가포르, 홍콩 역외금융센터 발전과정의 비교역사적 접근.” 『국제자유도시』 제6권 제2호, 2016, pp. 13~14.

31) 정식 명칭은 〈Joint Declar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Question of Hong Kong〉, 중국어로는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不列颠及北爱尔兰联合王国政府关于香港问题的联合声明〉이다.

32) 정식 명칭은 〈The Basic Law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어로는 〈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基本法〉이다.

위안화표시 채권(딤섬본드)을 발행하기 시작한 곳도 홍콩이 최초다. 2009년부터는 상하이 및 광둥성 4개 도시와 홍콩간의 무역거래에서 위안화 결제가 가능해졌다. 2010년대 들어서며 홍콩이 위안화를 이용한 무역거래, 위안화 예금과 대출, 위안화표시 금융상품의 출시와 거래가 가장 활발한 위안화 역외센터로 성장하고 있다.

홍콩이 위안화 역외센터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국정부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홍콩이 위안화 역외센터로 발전하는 과정이 런던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기존 역외센터의 발전과정과 완전히 다르다 설명한다. 미국은 런던이나 싱가포르에서 미달러를 유통시키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을 한 바가 없지만, 홍콩의 위안화 센터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미달러와 경쟁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가능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 점은 홍콩을 방문한 중국의 주요 지도자들의 언급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³³⁾

…… 홍콩은 위안화 역외센터를 발전시킬 수 있는 특수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지역의 경제협력과 발전으로 위안화 역외센터의 비즈니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홍콩에서 선도적으로 위안화 역외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 것을 언제나 지지하고 있습니다. …… 홍콩이 위안화 역외센터 발전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은 홍콩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지위 제고에도 유리하고, 홍콩과 중국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³⁴⁾

…… 중앙정부는 변함없이 행정장관과 특별행정구정부가 법에 따라 홍콩을 다스리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는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 ‘일대일로’ 건설,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건설, 위안화 국제화 등 중요한 발전전략 추진에서 홍콩의 이점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³⁵⁾

33) 김용민, “홍콩의 위안화 역외센터 발전 가능성 연구 - 런던, 싱가포르, 홍콩 역외금융센터 발전과정의 비교역사적 접근,” pp. 21~23.

34) 2011년 8월 홍콩을 방문한 리커창 총리가 ‘12-규획’ 금융협력발전포럼에서 진행한 연설 내용 중 일부이다.

35) 2017년 7월 홍콩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의 홍콩반환 20주년 기념대회 연설 내용 중 일부이다.

3. 지역 통합으로의 길 :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건설

홍콩과 선전, 둥관, 광저우 등 인접 중국 광둥성의 주요 도시들이 투자와 분업을 통한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홍콩 기업들이 광둥성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제조수출하고 홍콩은 그에 필요한 금융, 무역,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분업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주강삼각주지역은 베이징과 텐진의 화북경제권³⁶⁾,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일대의 장강삼각주경제권과 함께 중국의 3대 경제권으로 자리매김했다. 물론 광둥성 내에서도 홍콩과 가까운 선전, 둥관, 광저우 등 도시와 광둥성 외곽지역과 서쪽 지역의 격차는 크다.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건설이 국가적인 의제로 본격화 된 것은 2015년 3월 중국 중앙정부가 발표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공동 건설 추진의 비전과 행동(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与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에 선전 첸하이, 광저우 난사, 주하이 형칭 등 개방협력지역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여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건설을 추진한다는 목표가 제시되면서부터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세 지역을 하나로 묶기 위한 인프라 건설에도 속도가 붙었다. 대표적인 사업이 홍콩과 마카오 대만을 36.5km의 해상교량으로 연결하는 강주아오대교가 대표적이다. 2018년 말 완공되면, 중산, 장먼, 주하이 등 주강삼각주 서남지역과 홍콩까지의 이동시간이 기존 2~3시간에서 30분~1시간으로 단축된다. 2018년 3/4분기에는 광저우와 선전, 홍콩을 잇는 고속철도도 개통된다. 홍콩과 광저우간 철도 이동이 2시간에서 48분으로 단축된다.

매 오년 마다 중국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5년 계획(규획)’에서도 홍콩을 대하는 중국의 입장과 태도의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주권 반환 전인 8.5계획과 9.5계획에는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

36) 2014년부터는 베이징-텐진-허베이를 하나로 묶는 ‘징진지(京津冀)경제권’이라 불리고 있다.

장만 제시하는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홍콩의 경제와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 정부의 지원과 협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 발표된 13.5 계획에서는 첸하이, 난사, 형친 등 광둥성의 거점지역과 홍콩과의 협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건설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표 6〉 중국 5개년 계획 중 홍콩관련 언급(8.5계획~13.5계획)

연 도	주요 내용
8.5계획	·주권 반환 준비, 홍콩과 마카오의 안정과 번영
9.5계획	·주권반환 후, 현 제도 50년 불변, 특별행정구 설치 ·홍콩의 금융, 무역, 해운중심 지위 유지, 독립 관세구역 설치
10.5계획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 지원 ·홍콩의 국제금융, 무역, 해운중심 발전, 중국과의 경제협력교류 강화
11.5계획	·경제, 무역, 과학, 교육, 문화, 위생, 체육 등 영역에서의 교류 확대 ·중-홍콩 CEPA 지속 실행 ·홍콩의 서비스업(금융, 물류, 여행, 컨설팅) 발전 지원 ·홍콩의 국제금융, 무역, 해운중심 지위 유지
12.5계획	·홍콩의 금융, 해운, 물류, 여행, 전문서비스, 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발전 지원 ·홍콩의 역외위안화중심, 국제자산관리중심 설립 지원, 고부가가치화물 보관관리센터, 역내 배송센터 발전 지원 ·홍콩의 국제금융, 무역, 해운중심 지위 강화 ·홍콩의 환경보호,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인증, 과학기술, 문화 등 산업 혁신 지원, 중국과의 협력 영역과 서비스 범위 확대 ·홍콩의 금융시스템을 필두로 주강삼각주 금융협력구 건설 ·현대적인 제조업·서비스·물류 기지 건설 ·주강삼각주지역과 홍콩간의 교통운수 시스템 개선
13.5계획	·홍콩의 국제금융, 해운, 무역중심 지위 강화 ·홍콩의 역외위안화 클러스터, 국제자산관리중심 기능 강화 ·파이낸싱, 비즈니스, 물류, 전문서비스 등 첨단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발전 지원, 혁신·과학기술 및 신산업 육성 지원 ·아태지역 법률·분쟁해결 서비스센터 건설 지원 ·‘일대일로’ 건설 참여 지원, 중국·홍콩기업 협력 해외진출 지원 ·중-홍콩CEPA 업그레이드를 통한 협력 강화, 양 지역 금융협력 강화 ·사회, 민생, 교육, 문화, 환경보호 등 다양한 방면의 협력 심화 ·홍콩 중소기업·청년의 중국진출 지원, 혁신·과학기술산업 협력 지원 ·아태지역 법률·분쟁해결 서비스센터 건설 지원 ·범주강삼각주경제권 건설, 첸하이·난사·형친과 홍콩과의 협력 확대 ·광둥·홍콩·마카오의 대만구(大灣區) 건설 추진

출처 : <http://www.hprc.org.cn/>

IV. ‘우산 혁명’ 이후의 변화

현재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로서 2047년 까지 영국령 당시 경제 및 정치 체제 유지가 보장되고 있다. 그렇다고 2047년 이후 독립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특별행정구로서의 기간 연장이 가능한 상황으로 어떠한 식으로든 영구할 가능성이 높다.³⁷⁾ 하지만 대다수의 홍콩인들은 반중 감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홍콩대가 홍콩의 청년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2017년 상반기 3.1%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20년 전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31%로 10배나 됐다.³⁸⁾ 이렇게 반중 감정이 커지는데 있어서는 홍콩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된 ‘반분열국가법(反分裂國家法)³⁹⁾ 홍콩조항 개정 사건의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다. 물론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2047년 전 쯤 형식적 절차를 거쳐 승인해 줄 것이라 사료되지만 중국 정부 위에서부터 결정이므로 실질적인 항인치항(港人治港,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 원칙의 손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2003년 7월 1일 홍콩반환 6주년 기념일에 약 50만 명의 홍콩인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개최된 것으로 이는 ‘우산혁명’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볼 수 있다.

1. 2014년 홍콩 ‘우산 혁명’의 의미

홍콩의 ‘우산혁명’은 2014년 8월 31일 중국정부가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 입후보 자격 제한을 발표한 직후 터져 나왔다. 홍콩시민들은 친중 인사

37) 莫世祥, “香港回歸10年的經濟軌跡透析,” p. 79.

38) “중국 아래서 20년... “난 중국인”이라는 홍콩 청년 30%~3%.” 『조선일보』, 2017년 6월 27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7/2017062700336.html(검색일:2018.8.7.).

39) 타이완이 실질적으로 독립을 추진하거나 평화적인 통일의 틀을 파괴할 경우, 중국 인민해방군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으로, 2005년 3월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되었다. 법의 핵심은 타이완의 독립을 막고, 양안 통일을 실현하는 것.

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1,200명의 선거인단이 추천한 3명의 입후보자에 대해서만 직접선거를 실시하게 되어있는 현재의 행정장관 선거제도가 마치 홍콩 TVB에서 진행하는 미스홍콩 선발제도와 유사하다며 비웃었다. 2014년 9월 28일 홍콩 경찰의 최루액 발사를 막기 위해 펼쳐든 우산이 그대로 시위의 상징이 되었고, 코즈웨이베이, 센트럴 등의 지역에서 전개된 시위와 투쟁은 약 79일간 지속되었다.

2014년 가을의 우산혁명은 시위에 참여한 홍콩시민의 입장에서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과정과 결과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우산혁명은 홍콩시민의 정치적 자각을 크게 높였다. 매년 7월 1일 홍콩의 주권반환일에 ‘범민주파’의 주도로 진행되는 평화행진과는 달리, 2014년 가을 79일간의 시위과정에서는 장기간의 거리 점거와 일부 폭력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위나 농성에 참여해본 적이 없던 사람도 거리로 뛰쳐나왔고, 후반부엔 그런 사람이 30~40% 정도였다.⁴⁰⁾ 2016년 9월 치러진 제6차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는 비록 친중파 우세의 세력 구도가 유지되기는 했으나, 홍콩의 자결이나 독립을 주장하는 젊은 의원도 6명이나 당선되었다. 둘째, 보다 본질적으로는 주권 반환이후 중국의 경제통합을 통한 중국과 홍콩의 화학적 결합, 즉 중국의 대홍콩 경제외교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표 7〉 홍콩의 지니계수(1981~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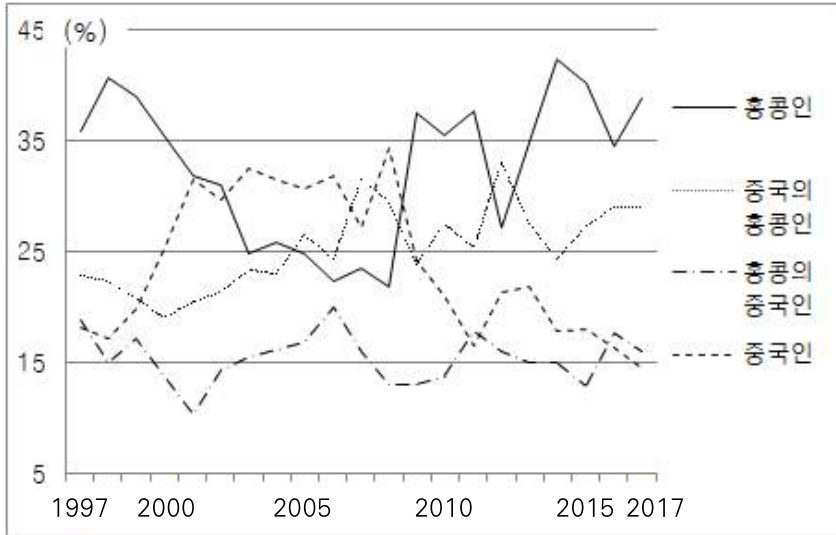
	1981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2016
지니계수	0.451	0.453	0.476	0.518	0.525	0.533	0.537	0.539

출처 : 홍콩 통계처

2014년 가을 홍콩에서 발생한 이른바 ‘우산혁명’은 당시 시위에 참여하거나 최소한 심정적으로 동조한 홍콩시민들에게는 ‘중국인’과는 구별되는 정체성을 강화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다.

40) 장정아, “이 폐허를 응시하라 - 홍콩 우산혁명과 그 이후의 갈등이 드러낸 것.” 『항해문화』 통권 제 92호, 2016, pp. 78~79.

<그림 3> 홍콩시민의 신분 인식 조사(1997~2017)⁴¹⁾



출처: HKU POP SITE(검색일:2017.12.28.).

최근 2017년 홍콩 반환 20주년을 맞이하여 7월 1일 홍콩 정부는 기념식을 개최하고, 처음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하여 아편전쟁에서 패한 이후 영국과 굴욕적인 난징조약을 맺게 되는 1842년부터 신중국이 건립되는 1949년까지의 시간을 언급하며 “홍콩이 드디어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직접 홍콩 반환 20주년 기념연설에서의 발언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붕괴 통치세력이 부패하고 국력이 약해서 나라가 심한 고난을 겪었다. 그 시절 강요에 의해 조국의 품을 떠났다. 20년 전 홍콩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고,

41) 홍콩대학교 민의조사프로그램(Public Opinion Programme)에서 홍콩 주권반환 해인 1997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이다. 설문조사는 1997년부터 2003년 까지는 매년 3~6회 실시했으나, 2004년부터는 정기적으로 6월과 12월 두 차례 실시하고 있다. 1997년부터 2000년 4월까지의 매회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그 이후에는 매회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는 언론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한다. 본 그래프는 1997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2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만을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한 것이다. 질문은 “You would identify yourself as a Hongkonger/Chinese/Chinese in Hong Kong/Hongkonger in China”이다.

민족이 겪은 100년 동안의 굴욕을 씻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이루었다.....⁴²⁾

이는 중국이 홍콩과는 한 민족이고 홍콩은 원래 우리의 일부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는 ‘우산혁명’ 이후 홍콩 내에 반중국 정서가 자리잡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한 것은 중국 정부의 이러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2의 ‘텐안먼 사건’⁴³⁾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 국경절 홍콩 텔레비전에 중국 국가 방송, 홍콩 내에 보통어 보급 등 애국주의 교육 강화에 따른 2012년 ‘세뇌 교육’에 반대하는 운동, 2017년 홍콩 반환 20주년을 맞이하여 일어났던 대규모 반중국 시위 운동 등에 비해 최대 규모인 이번 운동으로 홍콩 정치계과 학계는 홍콩인들의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처사로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주도하여 ‘센트럴을 점령하라’라는 모임을 창설하고 우산혁명으로 진행되었다.⁴⁴⁾

2. ‘우산 혁명’ 이후의 홍콩과 중국의 경제교류

2017년 반환 후 20년 동안 홍콩 전체 경제총생산(GDP)은 81% 증가했고, 1인당 GDP는 4만4,000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홍콩 본토에 현재 8,000여개의 기업들이 활동 중이며, 이 중 3,800개는 지역 본부나 지사이다. 아울러 홍콩의 외환보유고는 3,900억 달러로 지난 20년 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홍콩은 위안화 결제의 메카이자 금융천국이기도 하며, 2016년 홍콩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기업들의 공모금액만 25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금융은 홍콩이 세계와

42) 2017년 7월 1일 홍콩 반환 20주년 기념식에 참여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설 내용 중 일부이다.

43) ‘텐안먼 사태’는 1989년 6월 4일 일어난 중국 민주화 시위로, 중국 정부가 텐안먼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던 학생들과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한 유혈 참사 사건이다.

44) “홍콩 민주화 시위 갈수록 격화 ‘제2의 텐안먼 사태’ 되나.” 『스포츠투데이』, 2014년 9월 30일, http://stoo.asiae.co.kr/news/naver_view.htm?idxno=2014093008090087723(검색일:2018.6.28.).

연결되는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또한 홍콩은 지리적으로도 아시아 국가들과 가까운 비행거리에 속해 있고 전 세계 국가의 절반 정도는 비행기로 5시간 내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현재 홍콩은 중국대륙과 고속철도를 연결하려 하는 상황에서 홍콩은 최근 10년 간 매년 90억 달러씩 인프라 스트럭처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홍콩은 관광의 메카이기도 하여서 1997년 1,100만 명이던 연 관광객은 20년간 4배 증가해 현재는 5,600만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홍콩 반환 20주년 기념행사’).⁴⁵⁾

이렇듯 홍콩 주권 반환 이후 약 20년간의 중국의 대홍콩 경제외교로는 중-홍콩 CEPA, 중국과 홍콩의 금융통합,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건설의 추진 등 많은 경제 성과면에서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과거 홍콩시민은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중국 대륙에서는 서구화된 발전된 정체성을 내세웠고, 외부에서는 동양의 특이한 중국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웠고, 1997년 반환 이후 홍콩의 경제 성장은 위와 같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이미 2003년부터 광둥성에 역전을 당했고, 중국 전 지역에서도 중간 정도 규모로 성장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아울러 중국인들이 홍콩 부동산을 대거 매입함으로써 홍콩 부동산 가격의 폭등, 국내총생산(GDP)은 두 배 성장 했지만 양극화 현상의 심화, 가계부채의 증가, 최악의 실업난 등 이런 불만들이 2014년에 터진 사건이 ‘우산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홍콩 행정장관을 직선제로 뽑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기 보다는 그 동안 경제적, 문화적 등 많은 부분에서 우월적이었던 홍콩시민들의 추락으로 인한 표출이었다. 즉 홍콩의 경제가 점점 중국에 예속화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반중국 감정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5) 중국통계연감 : <http://www.stats.gov.cn/tjsj/ndsj/>

V. 결론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150여 년 만에 홍콩이 물리적으로 중국의 국경 안에 들어왔지만 그것은 중국 대륙과 홍콩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영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구축해놓은 기존 질서를 인정하는 ‘일국양제’는 중국에게 홍콩을 다른 성급 행정구역과는 달리 통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겨 주었다. ‘일국양제’의 약속으로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려야(港人治港)’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홍콩을 통합하려 했고, 그 수단과 과정을 본 논문은 홍콩에 대한 중국의 ‘경제외교’라 칭했다.

2003년 이후 중국과 홍콩의 CEPA 체결과 지속적인 보충협정을 통한 경제 교류 확대 노력은 실제로 중국과 홍콩 간의 경제 통합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중국 정부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중-홍콩 CEPA는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가장 강력한 경제외교의 수단이 되었다. 홍콩이 오랜 기간 중국 대륙과 서방을 잇는 금융센터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중국과 홍콩의 금융 통합 또한 중국의 대홍콩 경제외교의 강력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만 30년이 지났지만 홍콩시민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중국인’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국가적인 행사인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되었을 때, ‘중화’라는 민족주의 의식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홍콩시민들도 그들의 정체성을 ‘중국’ 또는 ‘중화’라는 틀로 나타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올림픽 직후 이어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당시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홍콩시민이 참가한 ‘기본법 23조(국가안전법)’ 입법 반대 시위를 거치며 ‘중국인’이라는 인식은 점차 열어지게 되었다.

현재 홍콩과 중국 간의 경제교류에서 많은 부분에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홍콩이 중국 대륙으로 반환되어 30년이 지난 지금 ‘우산 혁명’과 같은 반중국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미국 서든 메소디스트 대학의 링 스아오 조교수가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기고문에서 이번

우산 혁명의 실패를 두고 “중국이 승리를 선언하겠지만 실제로는 홍콩을 잃고 있다”라며 “중국의 강경 기조가 홍콩 젊은이들에게 중국과 중국 유산을 완전히 부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함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⁴⁶⁾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것은 단지 이 혁명이 민주화의 요구만이 아닌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불평등과 기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에 대한 갈증만을 내포한다고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자본의 논리에 의하면 어찌보면 당연한 것들이기 때문이고, 중국인과 중국자본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다. 물론 이는 홍콩시민들이 중국에 대해 느끼는 대륙에 대한 비하감, 민주주의 신념 등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많은 홍콩 사람들이 느끼는 중국에 대한 불만 사항은 단지 경제성장의 불평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홍콩 사람들의 큰 불만의 대상이 중국 정부가 아닌 중국 대륙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즉 이것은 과거 중국과 홍콩은 다르다는 자부심의 핵심이었던 중국 대륙인과 홍콩인과의 정서적 문화적 이질감이 더욱 홍콩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과거 영국 식민통치의 긍정적 유산이었던 사회시스템에 대한 믿음,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法治)사회 등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홍콩은 중국과 어떠한 결합을 통해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내야 할 시기이다. 중국 대륙의 정치적 공세는 앞으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홍콩 토착세력의 정체성 문제와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끊임없는 외부 세력과의 결합으로 인해 무더질 수밖에 없는 홍콩만의 새로운 시대적 트랜드에 맞는 새로운 홍콩의 철학적 고찰이 대두되는 시대이고 토착적 사고방식을 넘어선 정체성의 변화를 모색해야할 시기이다.

46) “홍콩 도심점거 사태, '끝내기 수순' 돌입하나.” 『연합뉴스』, 2014년 12월 9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09/0200000000AKR20141209163600074.HTML?input=1195m\(검색일:2018.6.2\).](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09/0200000000AKR20141209163600074.HTML?input=1195m(검색일:2018.6.2).)

참고문헌

- G. B. 엔다콧 지음, 은은기 옮김, 『홍콩의 역사』, 경기: 한국학술정보, 2006.
- 곽복선 외, 『중국경제론』, 서울: 박영사, 2015.
- 권혁재·최지영, “시진핑 체제 중국 경제외교의 발전과 특징: ‘중국의 꿈(中國夢)’을 위한 교두보 실현.” 『현대중국연구』 제16집 2호, 2015.
- 김석준, 『국가 능력과 경제통치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 김우준, “홍콩반환협상에서의 쟁점과 중국의 협상전략.”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2집 1호, 2013.
- 김용민, “홍콩의 위안화 역외센터 발전 가능성 연구 - 런던, 싱가포르, 홍콩 역외금융센터 발전 과정의 비교역사적 접근.” 『국제자유도시연구』 제6권 제2호, 2016.
- 김재철, “중국의 경제외교: 경제적 고려를 넘어서.” 『국가전략』 제13권 4호, 2007.
- 류영하, “방법으로서 ‘중국-홍콩체제.’” 『중국현대문학』 제83호, 2017.
- 박용석, 『최고의 홍콩 주식 110』, 경기: 위즈덤하우스, 2008.
- 박정동, 『현대중국경제론: 경제특구의 경제적 효과』, 서울: 법문사, 1993.
- 서승원, 『북풍과 태양: 일본의 경제외교와 중국, 1945-2005』,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 임계순, 『중국의 여의주 홍콩: 홍콩의 역사와 미래』,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7.
- 장정아, “‘이 폐허를 응시하라’ - 홍콩 우산혁명과 그 이후의 갈등이 드러낸 것.” 『항해문화』 통권 제 92호, 2016.
-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홍콩의 서비스산업 추진전략 및 시사점』, 서울: 외교부, 2014.
- 해롤드 니콜슨 지음, 신복룡 옮김, 『외교론』, 서울: 평민사, 2016.
- 莫世祥, “香港回歸10年的經濟軌跡透析.” 『深圳大學學報』第24卷 第3期, 2007
- 毛艷華肖延兵, “CEPA 十年來內地與香港服務貿易開放效應透評析.” 『中山大學學報』第53卷 第6期, 2013.
- 袁易明, “制度性整合: 香港與內地經濟關係的未來形態.” 『深圳大學學報』第24卷 第3期, 2007.
- 張曉通, “中國經濟外交理論構建.” 『外交評論: 一項初步的嘗試』第6期, 2013, p. 53.
- 齊明, “CEPA 簽署以來對內地和香港的經濟影響研究.” 『外交學院 碩士研究生學位論文』2013.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中HK 경제협력 강화 협정(CEPA)의 주요 내용』, 한국무역협회, 2003, http://www.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p?sNo=284.
- “중국 아래서 20년... “난 중국인”이라는 홍콩 청년 30%~3%.” 『조선일보』, 2017년 6월 27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7/2017062700336.html(검색일:2018.8.7.).
- “홍콩 도심점거 사태, '끝내기 수순' 돌입하나.” 『연합뉴스』, 2014년 12월 9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09/0200000000AKR20141209163600074.HTML?input=1195m>(검색일:2018.6.2.).
- “홍콩 민주화 시위 갈수록 격화 '제2의 텐안먼 사태' 되나.” 『스포츠투데이』, 2014년 9월 30일,

http://stoo.asiae.co.kr/news/naver_view.htm?idxno=2014093008090087723(검색
일:2018.6.28.).

중국통계연감 : <http://www.stats.gov.cn/tjsj/ndsj/>

ABSTRACT

China's Hong Kong Economic Integration Policy

Junho Kim(Professor, Jeju Halla University)
Yongmin Kim(Executive Director, Tamla Coffee Co., Ltd.)

Thirty years have passed since Hong Kong returned to China. Hong Kong is economically very tightly integrated with China, but Hong Kong and China, especially Hong Kong and China, are not chemically combined.

However, the proportion of Hong Kong residents who regard their identity as "Chinese" has continued to decline since 2008. At present,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Hong Kong and China is taking place in many areas. However, 30 years after Hong Kong returned to mainland China, anti-Chineseization phenomenon like "umbrella revolution" has happened. It can not be said that this revolution is not only a demand for democratization, but also the inequality of economic growth and the thirst for employment that young people are experiencing so far. According to the logic of capital, it is a matter of course, and the Chinese and Chinese capital will be the same. This, of course, would have implications for Hong Kong citizens about the continent they feel about China and their belief in democracy. Also, the complaints about China, which many Hong Kongers now feel, will not be limited to the inequality of economic growth.

It is time for Hong Kong to achieve development and growth through any combination with China. The political offensive in the Chinese continent is expected to become stronger in the future for the Chinese government, and a sharp confrontation with the identity problem of Hong Kong indigenous forces will occur. It is time for a new Hong Kong philosophical review to meet the new trend of Hong Kong which is bound to be dulled by the unity of this external force and it is a time to seek change of identity beyond the indigenous way of thinking.

Keywords : China, Hong Kong, Hong Kong Return, Integration,
National Anthem, Economic Diplomacy, Economic Exchange,
Umbrella Revolution

투고일: 2018년 6월 30일, 심사일: 2018년 7월 17일, 게재확정일: 2018년 8월 20일